



천주교의정부교구
DIOCESE OF UIJEONGBU

“나는 ‘참된’ 천주교를
봉행하는 사람인데,
어찌 형벌을 두려워하
겠습니까?”



의정부교구 순교자공경위원회

광탄 분수리(약현성당묘지) 피 가타리나(1818~1878)



**‘하느님의 종 피 가타리나 광탄 분수리묘지’

①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? / 요한11,25-26

“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,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,
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.”(희망의 표지)

②죽음이 중요한가? 아니면 삶이 중요한가?

묘지는, 무덤은 부활신앙의 고백인데...

③광탄 분수리에 ‘피 가타리나’ 묘지가 있다는데...

당시 교회에서 멸칭이 된 ‘피록이의 사연’ : 배교에서 밀고로 이어지는 인간의 유약함...
나중에 회심을 통해 ‘전대미문의 박해’(병인년대박해)에 대한 증언자
피영록(바오로)가 되는데.. 회개의 신학적 가치.

④유해 공경 / 일반적 영웅숭배와 다름,

통공通功교리 순교성인들의 삶과 성덕, 모범 본받고, 순교성인들과 일치(영적 결합), 전구
를 통해 도움을 받고.(교회법 제1187조; 성인, 복자들, 하느님의 종 공적경배로 공경 가능)

광탄 분수리(약현성당묘지) 피 가타리나(1818~1878)



** '하느님의 종 피 가타리나 광탄 분수리묘지'

이장 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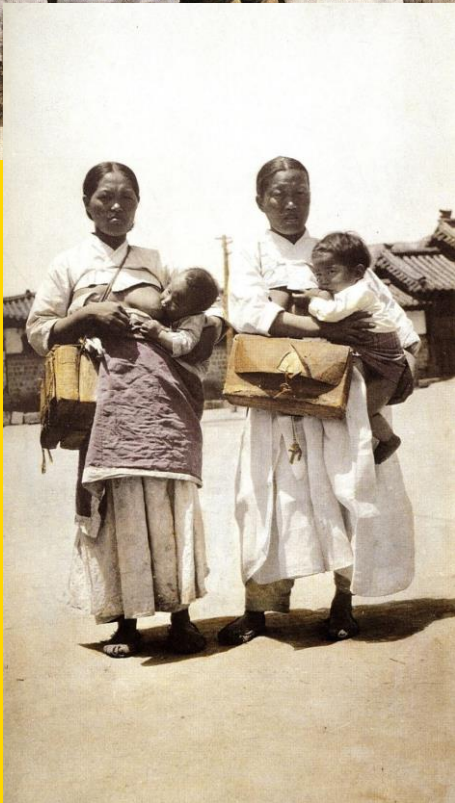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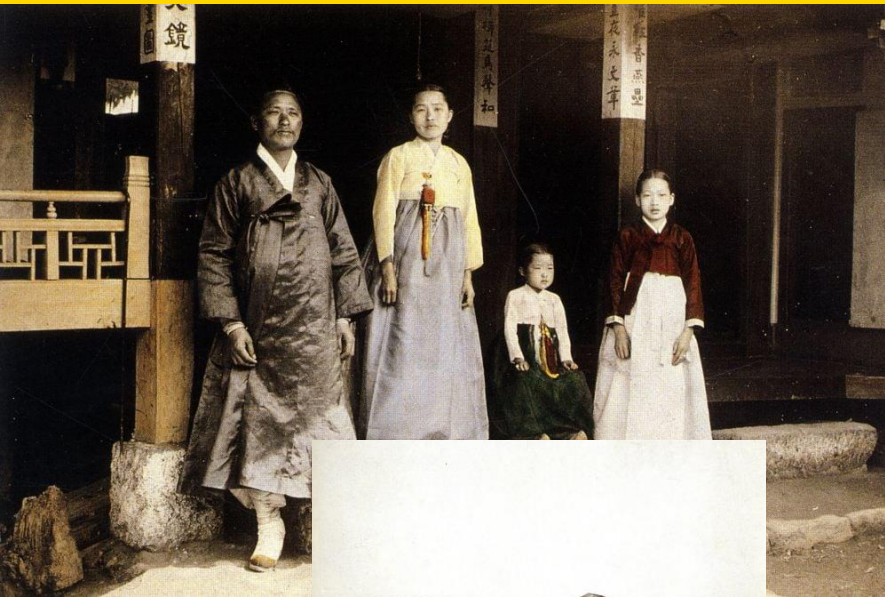
① 피 가타리나

고양군 은평면 신사리 고택골高宅谷(현 은평구 신사동) → 1938년 11월 시흥군
신동면 서초리 연구비彦九碑(서울 서초구 반포동, 강남구 논현동 일대)
→ 1968년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분수리묘지(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 81)

② 이필선 베드로(1831~1868)

시흥군 북면 동작리 비개고개(현 동작구 동작동) → 연구비彦九碑 → 분수리 묘지

피 가타리나는 어떻게 살았나?



** 피 가타리나의 생애

- 역관의 손녀.. 어려서 어머니에게 교리와 기도문 익혀...

- 43세에 상처, 홀로 지내던 정의배 성인과 혼인..

창동(현 서울 남창동) → 남대문밖 자암(현 봉래동, 순화동 일대)에서 3년 간

베르뇌 주교 모셔(특히 1895년 경신박해 당시...3개월간 외부 출입 못해)...

1866년 병인박해로 정의배 순교...노고산(현 서강대학교정) 모셔

- 1877년 8월 리델주교와 함께 체포돼 좌포청에 압송

- 1878년 3월 17일. 옥에서 장티푸스성 열병으로 순교.

** 성덕에 대한 평판

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(열심한 묵상과 기도생활에, 대·소재 잘 지켜)

② 정덕을 잘 지켰다(정결의 덕)

③ 열심히 전교활동, 교리교육(아이들 밤낮으로 돌봐..늘 온유한 눈빛에)

④ 가난한 이들과의 나눔 실천(자신은 변변치 못한 옷 입으면서, 햇빛은 교우가 있으면

자신의 옷을 벗어주고...) 이를 위해 늘 바느질품을 팔아...

강완숙과 닮은 피 가타리나 여회장



**피 가타리나는 강완숙 골롬바(1760~1801) 복자와 삶이 무척 닮았다.

① 죽음으로 성직자를 지켰다

베르뇌 주교(3년간) VS 주문모 신부(6년간가량?)

② 열심한 수계생활

열정과 극기의 신앙실천, 대·소재와 묵상과 기도 통한 철저한 수계

③ 동정생활

동정녀공동체에 집 제공하고 지원, 동정부부처럼 정결의 덕 지키며 살아.(정의배 마르코=최초의 都會長) 조숙 베드로와 권천례 데레사,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 같은...

④ 열심한 전교활동

사도세자(장종)의 3남이자 정조 이복동생 은언군 이인李裨의 부인 등 각계 각층 여성들 전교, 아이들 교리교육과 전교에 매진

이필선 베드로(1831~1868) 순교자



**이필선 베드로

① 하느님의 종도, 복자도, 성인도 아니다... 그저 순교자일 뿐...

② 한성부 서부 용산 이태원(한강진 인근) 태생...

둔지미(둔전屯田을 부치던 마을)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농부

③ 1862년 or 1863년께 이희대의 전교로 교리를 배우고,

아현 최 회장의 집에서 베르뇌 주교에게 영세...

**<좌포청 등록>의 내용;左邊捕盜廳

*“1866년 박해 후 위험한 기세에 겁을 내어
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폐기한 지 다년이 지났습니다.
지금 갑자기 잡혔으니, 배교하든 배교하지 않든 간에
죽는 것은 일반이므로, 오직 속히 죽기만을 원합니다”*

(손녀 이바르바라의 증언)

④ 1868년 10월 15일(음 8월 30일) 포도청 옥에서 교수형 받고 순교.(38세)

순교자는...

순교자는 본디 죽음으로써 하느님을 증거한다.

우리는 피 가타리나와 이필선에게서 신앙의 증거자로서의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된다.

“선교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대라”며, 혹독한 형벌을 가해도,

그 행방을 대지 않고 굳게 신앙을 증거했던 피 가타리나,

그리고 계속되는 심문에도 배교는 커녕

“오직 죽기만을 원한다”고 말했던 이필선 베드로

둘 모두 하느님을 사랑했기에

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증거하고 순교의 길을 걸었다.

그래서 순교는 하느님의 은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.